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2 MAY
Vol.232

Vision 2025

No.1 향한 새 변화와 혁신의 길

삼성 KPMG

COVER STORY

‘VISION 2025! - NO.1’ 향한
새 변화와 혁신의 시작



VISION 2025!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플라톤

지난 4월 28일 삼정KPMG는 온라인 라이브로
‘FY2022 사업전략 발표회’를 열고
‘Vision 2025’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People First, 인재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신뢰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Vision 2025! - No.1’의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변화와 혁신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CONTENTS

MAY 2022 Vol.232
삼성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

People First I 20

‘제1회 삼성KPMG 챔피언십’ 특집 I
본격 포문을 연 챔피언십! 그 현장 속으로

People First II 22

‘제1회 삼성KPMG 챔피언십’ 특집 II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주인공은 누가 될까?

삼성별거담 24

‘FY2021 포상 시상식’ 개최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삼성별그림 26

소중한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이동규의 두줄칼럼 28

협상의 기술

心 Care 30

가깝고도 먼 존재, 가족!
건강한 가족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Samjong News 32

삼성KPMG·매일경제 ‘ESG 경영포럼’ 개최 외

건강한 성장

04 FY2022 삼성KPMG

‘Vision 2025: To Be No.1’을 향해!
FY2022 사업전략 발표회 개최

06 Emerging Trends

ESG 2.0 도래, 기업 대응 전략은?

08 Market Reader

ESG로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유통·소비재 및 테크 기업의 ESG 추진 방향은?

12 Team Story

‘소통과 성장의 뉴 플랫폼’ ICE3본부

14 Client+

인공인간 시대를 열다!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인즈랩

16 Expert’s Advice

횡령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 시스템과 책임자의 역할은?

17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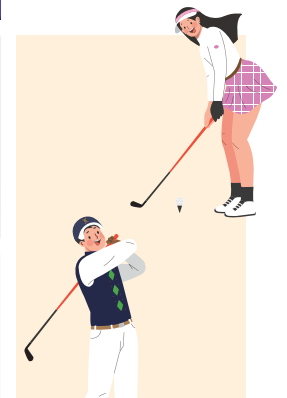
04p



08p



20p



22p

‘Vision 2025: To Be No.1’을 향해! FY2022 사업전략 발표회 개최

지난 4월 28일 삼정KPMG는 ‘FY2022 사업전략 발표회’를 개최하여 FY2021의 성과를 돌아보고, 중장기 목표인 ‘Vision 2025’와 FY2022 사업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법인의 Manager 직급 이상 1,700여 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며 ‘Vision 2025’와 새 사업연도를 향한 다짐을 함께 했다.

○ ‘Vision 2020’ 성공적 달성 이은 성장 고공행진 모든 Function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삼정KPMG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Vision 2020’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2021년에는 다시 ‘Vision 2025’라는 목표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삼정KPMG가 지향하는 ‘Vision 2025: The Clear Choice’는 ‘존중 속에 성장하는 인재들이 신뢰로 사회에 공헌하고, 최고의 역량과 도전 정신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치열한 경쟁과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도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희망찬 첫 출발을 함께 했다.

삼정KPMG는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첫 해인 FY2021에도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전년 대비 23%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5년 연속 Global Board Country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Audit, Tax, Deal Advisory, Consulting 모든 Function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며,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견인했다.

무엇보다 ‘People First’, 인재 존중 문화를 위한 실천과 노력이 이어왔다. 7년 연속 신입 회계사 최다 채용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했으며, 업계 최고의 보상과 유연하고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Do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를 기반으로 높은 품질의 감사/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계 업계 투명성을 위해 힘써왔다. 이외에도 사회공헌 및 기부 등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해왔다.

‘Vision 2025’ 삼정KPMG가 바라는 2025 우리의 모습



Growth
건강한 성장

최고 역량과 **도전** 정신으로
업계를 선도하며



People
행복한 일터

인재들이 **존중** 속에
꿈을 펼치며 성장하고



Trust
신뢰받는 조직

신뢰와 지속가능 가치로
사회에 공헌하는



● ‘Vision 2025: To Be No.1’을 향해
하나된 마음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고, 모든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 역시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에게 공공의 이익 창출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삼정KPMG는 가속화된 변화 속에서 진정한 No.1 Firm이 되기 위해 최고의 역량으로 업계를 선도하며 Vision 2025, Big1을 목표로 건강한 성장을 이룩하고자 한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법인, 행복한 업무 환경,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로 행복한 일터를 일구고, 높은 윤리 의식과 최고의 전문성 및 품질을 인정받는 조직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 ‘Quality Performance’,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인재, 품질,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이루고, 진정한 No.1 Firm이 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할 것이다.

먼저, 삼정KPMG는 ‘People First 인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율과 존중, 포용, 즐거움, 재미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최고의 보상과 공정한 평가는 물론, 유연한 업무 환경을 위해 GFC 내 법인 공간을 모두 스마트 오피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통과 즐거움을 위한 골프 챔피언십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또한, 전문가적 윤리 의식과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며 최고의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신뢰하는 전문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고객보다 한발 앞선 시각으로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에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한편, 김교태 회장은 Vision 2020의 성취로 얻은 자신감을 기반으로 Vision 2025 실현을 위해 임무 앞에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솔연(率然)의 하나된 마음으로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겸손한 자세,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존중의 문화로 Vision 2025를 실현해가자”고 말했다.

‘내일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위대한 내일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한다. 새로운 비전, Vision 2025를 향해 정진해 가는 삼정KPMG가 하나된 마음으로 위대한 내일을 맞이하기를 바라본다.



함께 이뤄온 자랑스러운 Vision 2020!
이제는 Vision 2025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ESG 2.0 도래, 기업 대응 전략은?

2022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가한 기업들의 공통 화두는 ‘친환경’이었다. 탄소중립에 대한 각국의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들도 친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화두를 신제품과 기술에 담아내면서 ESG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번 호에서는 ESG 1.0을 넘어 한층 진화된 ESG 2.0의 의미를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도래한 ESG 2.0 시대에서의 기업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 ESG 2.0 시대, ESG 1.0과 어떻게 다른가?

2021년까지 기업들은 ESG 경영 체계를 구축, 선언했고,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앞다투어 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ESG 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를 ESG 1.0 시대로 구분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미 구축된 ESG 경영 기틀 위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ESG 경영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ESG 관리 대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인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단순히 ‘ESG 리스크 회피’가 아닌 ‘ESG 기회 확보를 통한 적극적 기회 창출’ 관점으로 진화했다는 데 기인한다. 즉, ESG 경영 이행 및 운영이 가속화되는 ESG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 ESG 2.0 시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ESG 리스크 관리 범위 및 수준의 확대와 더불어 계획의 구체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ESG 중 E(환경)를 먼저 살펴보자. ESG 2.0 시대에는 Scope 3(물류, 출장, 공급망 및 제품 사용 등으로 인한 외부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S(사회) 관점에서도 기존의 ESG 리스크 관리 범위를 자사 중심에서 협력사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공급



망 내 ESG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협력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ESG 관점에서 리스크를 식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협약과 이니셔티브 등을 활용해 리스크 관리 수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ESG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IT 시스템에 기반한 ESG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ESG KPI를 도입하여 경영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ESG 2.0 시대에서는 ESG 경영을 위한 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언을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과 재무적인 영향까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ESG 관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 신규 모델 재정의 및 투자 우선순위화를 추진해야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ESG 관련 투자 규모는 4경 5,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2030년에는 14경 3,000조 원에 이를 전망

ESG 2.0 특징 및 ESG 2.0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



Source: 삼정KPMG

이다. 이는 기존의 경영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대한 성장 기회가 ESG 관련 사업 영역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ESG 관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사업 모델을 정의하는 한편 투자 우선순위 결정 시에도 ESG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의 화학 전문 기업 바스프(BASF)는 지속가능 제품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속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슈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추진하되 개선 성과가 없을 경우 제품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셋째,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반 공시 대응 및 정보 공시 인증·검증은 필수이다. 녹색분류체계는 ESG 관련 비즈니스를 정의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주요 투자자들은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녹색분류체계 간 연계성을 기준으로 피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의 사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이를 주목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권을 중심으로 TCFD 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TCFD 공시 의무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TCFD가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의 재무적 영향 분석, 저탄소 경제 전환 시나리오와 연계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내 기업의 경우, 해당 정보 공시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공시한 정보의 인증

및 검증 절차도 검토해야 한다. 향후 ESG 정보 공시는 재무 보고와 같은 수준의 엄격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들은 ESG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ESG 경영을 도입하는 시기를 지나, ESG가 게임 체인저로서 작용하는 ESG 2.0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시대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고도화된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ESG 관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 ESG 투자 환경에 걸맞은 정보 공시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ESG 2.0 시대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ONTACT US

ESG Business Group
문상원 상무
Tel. 02-2112-6513
E-mail. sangwonmoon@kr.kpmg.com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el. 02-2112-7095
E-mail. nkim15@kr.kpmg.com

ESG로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유통·소비재 및 테크 기업의 ESG 추진 방향은?

ESG 2.0 시대가 도래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고객, 투자자, 정부는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에게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했다. 일례로 'KPMG 글로벌 소비 트렌드 조사' 결과를 보면, 글로벌 소비자의 90%는 사회에 공헌하는 윤리적 기업의 제품 구입에 더 높은 지불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37%는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우선순위가 ESG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통·소비재·테크 업계 등 여러 산업에서 ESG 2.0 경영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 유통·소비재산업 ESG 트렌드는? '자원순환 & 업사이클'

ESG 2.0 시대를 맞이하며 국내외 기업들은 ESG를 통해 재무·비재무 성과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각 산업에서 ESG 전략 수립과 실행이 보다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 주목하는 중고거래도 ESG의 일환이다. 중고거래는 신상품 대신 기존 자원의 반복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자원순환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소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대형 백화점 니만마커스는 온라인 세컨 핸드 스토어 패션필(Fashionphile)의 지분 인수로 중고거래 비즈니스에 나섰으며, 럭셔리 이커머스 플랫폼 파페치는 중고 플랫폼 '파페치 세컨드 라이프(Farfetch Second Life)'를 론칭했다.

한편, 업사이클도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ESG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사이클은 버려진 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리뉴얼밀(Renewal Mill)은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콩비지를 활용해 글루텐 프리 밀가루를 제조하고 있으며, 벨기에 맥주 기업 AB인 베브는 맥주 제조 후 남은 곡물을 활용해 푸드 업사이클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폐플라스틱으로 친환경 섬유나 패션 제품을 개발하는 ‘패션 업사이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섬유 기업 효성티앤씨가 버려지는 페트병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플라스틱을 녹여 ‘리젠(Regen)’이라는 친환경 섬유를 개발했고, 패션 기업 한섬은 재고를 활용한 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 제작에 나서고 있다.

○ 크루얼티 프리와 비거니즘,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확산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제품 선호 경향이 짙어지며 ‘비건(Vegan)’ 트렌드가 ESG 경영의 일부로 확산 중이다. 식품 시장에서는 콩, 버섯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이나 첨단 미생물 발효 기술로 개발한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대체식품에 관심이 높다. 네슬레, 타이슨푸드 등 글로벌 식품 기업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체식품 관련 업체를 발굴하고 투자 및 M&A를 추진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패션업계는 버섯 균사체, 사탕수수, 선인장 등을 활용한 비건 가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가방·스니커즈에 사용해왔던 동물성 가죽을 비건 가죽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구찌는 2021년 비건 가죽 스니커즈를 출시한 바 있으며, 에르메스도 비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올버즈(Allbirds)는 사탕수수로 만든 비건 신발로 대표적인 친환경 유니콘 기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로컬 소싱·공정무역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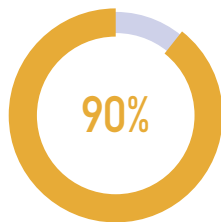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유통·소비재 기업은 사회 관련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식음료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상생경영을 위하여 지역 농가 및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로컬 소싱에 나서거나 계약 재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식품 기업 벤앤제리스(Ben & Jerry's)는 설탕, 바닐라, 카카오 등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를 공정무역 인증을 획득한 파트너사로 부터 수급하며 기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화장품 기업 역시 공정무역으로 원료를 조달해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원료 생산지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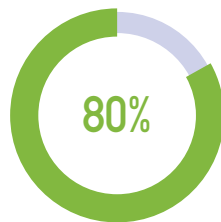
테크 기업, ESG 리스크 관리 및 새 기회 모색 중

ESG가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산업 중 하나인 테크 산업에서도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별 ESG 전략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 고유 특성을 ESG 경영에 투영해야 하는 가운데, 테크 기업의 경우 데이터센터, 생산 설비 가동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것이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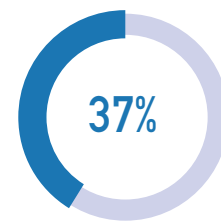
소비자의 우선순위 변화



90%의 소비자는 사회에 공헌하는 윤리적 기업·브랜드 제품 구입에 더 높은 지불 의사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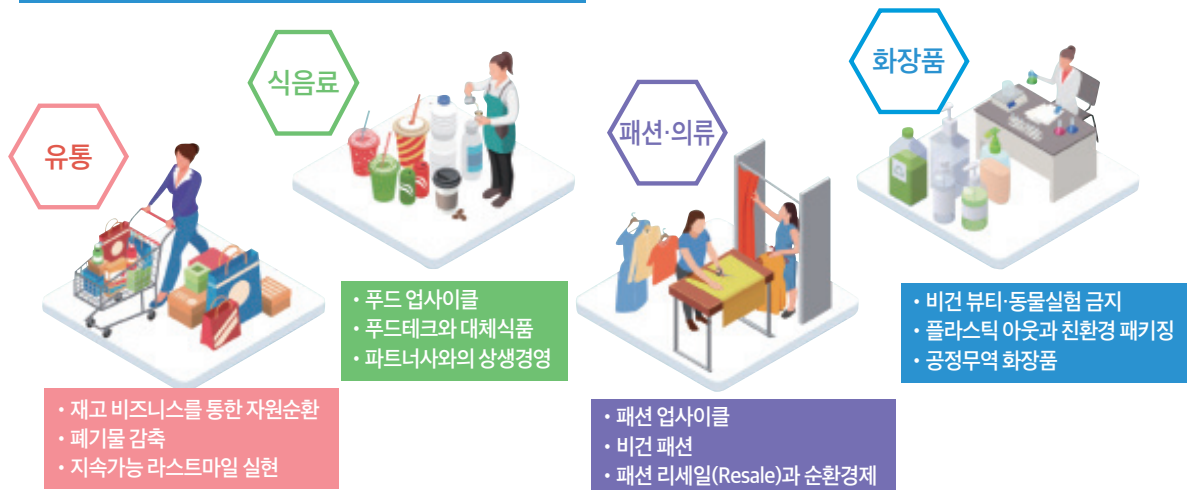
80%의 소비자는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브랜드 제품 구입을 선호



37%의 소비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선호함

Source: KPMG International(2021) 'Me, my life, my wallet'(Third edition)

유통·소비재산업의 ESG 비즈니스 트렌드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테크 기업 ESG 리스크 요인과 ESG 추진 과제



Source: 삼정KPMG

이다. 복잡한 공급사슬에서 인권 및 환경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데이터 보안과 사이버 공격에 민감하며 탄소 배출 관련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도 주요 ESG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또 제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오염과 폐기물이 발생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회적, 윤리적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자연 냉각이 가능한 해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 나틱(Project Natick)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책임 있는 원자재 소싱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해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협의체에 가입해 공급망을 관리하는 테크 기업도 늘어났다.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 인권 침해, 불법 운영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테슬라는 ‘코발트 프리’를 선언하며 향후 코발트를 자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탄소 절감 이니셔티브 또한 실천 중이다. 테슬라는 엑스프라이즈 재단(XPRIZE Foundation)을 통해 비용 경쟁력을 갖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을 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이 오·남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테크 기업들은 인간이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AI 원칙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향한

ESG 요구가 점점 거세지며 ESG는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ESG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과 브랜드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업만이 고객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 제품·서비스가 기획되는 초기 단계부터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고 폐기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 요소와 비즈니스 기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ESG 경영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기존 비즈니스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ESG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 전략을 갖춰야 할 시점이다.

CONTACT US

ESG Business Group

김정남 상무

Tel. 02-2112-7641

E-mail. jungnamkim@kr.kpmg.com



경제연구원

차윤지 책임연구원 · 이효정 이사

Tel. 02-2112-6914 · 02-2112-6744

E-mail. yoonjicha@kr.kpmg.com · hyojunglee@kr.kpmg.com

○ **시장 개척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도전 DNA가 흐르는 ICE3본부**

ICE3본부는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ICT와 미디어 콘텐츠 산업 내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존의 ICE1, ICE2본부와 함께 ICE 산업 내 삼정KPMG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플랫폼이다.

ICE3본부는 본부장인 전철희 부대표를 포함한 7명의 파트너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70여 명의 산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신설된 본부만큼 본부원들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본부, 본부원 모두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본부, 아울러 법인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로 나아가고자 한다.

ICE3본부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에 대한 도전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ICE3본부의 구성원들은 과거 국내 플랫폼 산업의 초창기부터, 새롭게 성장의 가능성이 큰 고객사와 관계를 맺어 그 도전과 성장을 함께 해왔다. 특히, US-SOX부터 K-SOX에 이르는 내부통제와 프로세스 개선 자문, 연결시스템 구축, PA(Private Accounting) 서비스의 지속적 개발 등의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과 고객,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도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ICE3본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과 미디어 콘텐츠 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회계와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자문, 가상화폐, NFT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자문 등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 **'소통과 성장의 플랫폼'을 모토 삼아
함께 성장하는 본부로!**

ICE3본부의 모토는 소통과 성장의 플랫폼이다. 대외적으로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

획이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본부원들과 열린 마음으로 개선과 변화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일터와 신뢰받는 조직, 건강한 성장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장이 본부의 성장이고, 곧 본부원 개개인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네트워킹의 기회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고자 한다.

골프에서 파3 홀은 모두에게 홀인원을 꿈꾸게 한다. 새롭게 출범한 ICE3본부는 고객 및 본부원들이 성장의 홀인원을 꿈꾸고 이를 수 있는 파3 홀이 될 것을 다짐해본다.



ICE3본부를 이끌어 가는 7명의 파트너들이 모여 활짝 웃고 있다.
좌측부터) 최이현 상무, 정 현 전무, 전철희 부대표(본부장), 강승미 상무, 장현민 전무, 강상현 상무, 허재훈 상무

C O N T A C T U S

ICE3본부

- 전철희 본부장 **E-mail. cjun@kr.kpmg.com**
- 장현민 전무 **E-mail. hyunminjang@kr.kpmg.com**
- 정 현 전무 **E-mail. heonjung@kr.kpmg.com**
- 강승미 상무 **E-mail. seungmikang@kr.kpmg.com**
- 최이현 상무 **E-mail. yeehyunchoi@kr.kpmg.com**
- 허재훈 상무 **E-mail. jaehoonheo@kr.kpmg.com**
- 강상현 상무 **E-mail. sanghyunkang@kr.kpmg.com**

인공인간 시대를 열다!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인즈랩



AI 은행원, AI 기상 캐스터, AI 상담원 등 AI 기술로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다.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상장한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인즈랩이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마인즈랩을 만나본다.



○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 이끄는 기업

2014년에 설립된 마인즈랩은 설립 초기에는 빅데이터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AI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다. 현재는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했다.

마인즈랩의 대표 상품은 'AI 휴먼(AI Human)'이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AI로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직업별 인공인간을 만들어 기업과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AI Human에 대한 비전은 이미 20여 개의 직업별 인공인간으로 만들어져 실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마인즈랩은 현재까지 40개의 자체 AI 엔진을 개발했고, 지난 2021년 3월에는 그 AI 엔진들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M1' 개발에 성공했다. AI 휴먼인 M1은 음성·시각·언어·사고 기술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인공인간이다. 사람의 목소리와 톤을 그대로 재현하고, 실시간으로 음성을 인식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한다. 인공인간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 립싱크 아바타 기술은 입력한 텍스트에 맞는 얼굴과 입 모양을 생성하는 기술로,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1



2

마인즈랩은 AI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인공지능 단일기업으로는 최초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여 '실질적'인 숫자를 만들어 낸 바 있다. 마인즈랩은 2018년 6월에는 대한민국창업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2019년 11월에는 2019 대한민국 컴퓨팅 부문 인공지능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 11월에는 코스닥에 상장했다.

○ **인공인간, 뉴스 앵커·은행원·상담원으로!**

마인즈랩의 AI 휴먼, M1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인공 지능 AI Human M1 사업을 개시했으며, 현재는 AI Human Store를 통해 M1을 판매 중이다.

KBS와 MBC의 기상 캐스터와 뉴스 앵커로 활약을 시작했고, 신한은행의 인공인간 은행원으로 전국 각 지점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대해상의 콜센터에서 인공인간 고객 상담원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마인즈랩은 AI 엔진·플랫폼·서비스 기술을 모두 갖췄다. 이미 보험·카드업권에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를 제공했으며, 한 카드사에서는 모집인 교육에 마인즈랩의 AI 휴먼을 사용 중이다. 이외에도 여러 명의 화자를 분리하여 회의를 기록할 수 있는 마 음회의록서비스, 저작권 감시인, 산불 감시인, 공정 관리자, 관제사 등 역할을 AI 휴먼이 대신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용 서비스(SmartX), AI API서비스(마음 클라우드), AI 데이터 구축 등 AI 기반 응용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에 열린 ‘CES 2022’에서는 신한은행과 미래 은행 영업점 모습을 구현해 큰 이슈를 모았다. 당시

블루매니저(청원경찰)와 점포 창구 은행원을 지원하는 인공인간을 선보이며, 실제 점포 직원들이 하는 업무 중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시현했다. 자체 구축한 딥러닝 기반 STF(Speech-To-Face) 알고리즘과 음성생성(TTS) 알고리즘은 상용화된 기술 중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마인즈랩은 5월 1일 시휴먼의 두번째 버전인 M2를 공개했다. M2는 M1 보다 인간에 가까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진화시켰다. 문장에 담긴 감정을 표정과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Emotional STF/TTS 기능과 한국어 화자의 데이터만으로도 한·중·일·영 등 4개 국어가 가능한 Multilingual STF/TTS 기능을 갖췄다. 음성인식 기능도 강화시켜 현장의 잡음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더 잘 구분해 내도록 했다.

○ **Global Best · 성과 중심 · 수평적 기업문화로!**

마인즈랩은 Global Best 기업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 임직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이 설 곳이 없는 건전한 문화 마인즈랩은 ‘선한 기업’을 지향한다. 또한, 마인즈랩은 성과 중심 문화를 지향한다. 업무 성과, 수익창출 능력, 전문 역량 등으로 성과 평가를 진행하며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탁해 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인즈랩은 수평적이고 젊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찾고 결단력 있게 업무를 실행하고 팀 내외에서 즐겁게 의사소통하며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책임감을 갖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를 지향한다. 유연한 출퇴근 시간, 자율복장 및 자기 계발비, 식대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4



5

1. 마인즈랩 공식 홈페이지 maum.ai
2. AI 휴먼 아나운서: 여수 MBC에서는 AI휴먼 기상캐스터를 도입해 연간 730회의 기상방송을 진행 하고 있다.
3. 2021년 11월 23일, (주)마인즈랩 코스닥 상장 기념 사진
4. 콜센터에 적용된 인공인간 고객상담원
5. CES에 출품되었던 신한은행 인공인간 은행원 모습

횡령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 시스템과 책임자의 역할은

대규모 자금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어떻게 감독하고 운영해야 할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인 김유경 전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다.



Q1 대규모 자금횡령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검찰청이 발행한 '2021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중 발생한 횡령 사건 수는 6만539건에 달합니다. 한국 인구수에 대비하면 인구 800여 명당 1년에 1건의 비율로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횡령사고는 주로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상장유지, 신용등급과 채무연장, 대외 평판과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회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대표이사과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Q2 그렇다면,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어떻게 감독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첫째,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자금횡령과 같이 발생 가능성 높은 부정 위험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통제활동이 존재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업무분장은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업무분장 규정이 정비돼 있고 겉보기에 잘 준수되는 경우에도 전산 시스템상 접근권한이 규정에 맞춰 일관되게 설계되지 않으면 통제를 우회한 부정행위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공모나 부정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구매나 자금부서 등에 지속적인 업무 순환을 실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통제운영 단계에서는 권한 있는 상급자의 검토가 단순히 승인에만 머물러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거래,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안건 등으로 상정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셋째, 평가 단계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끝으로 식별된 모든 미비점이 누락 없이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지 확인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통제미비 등 지적사항을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고 실제 반영되는지도 질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연간 계획을 고려해, 외부감사인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도중 발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의사항은 없는지, 경영진의 보고한 내용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미비점에 대한 경영진의 개선방안이 외부감사인이 볼 때도 유효한 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 김유경 전무

Tel. 02-2112-0639

E-mail. youkyoungki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2월 21일 게재된 한국경제 [삼정KPMG CFO Lounge] 횡령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 시스템과 책임자의 역할'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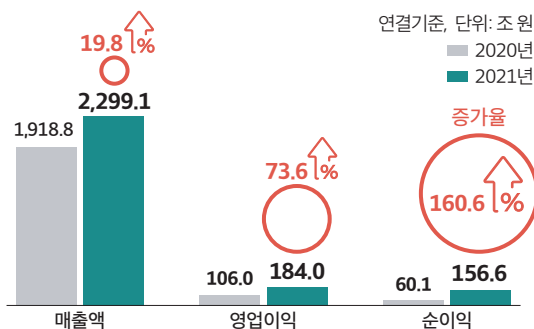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시대, 유통 업체들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AI 등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맞춤형 투자 솔루션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새롭게 생겨난 용어를 배워보고, 최근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좋은 소식도 통계로 살펴본다.

코스피 상장사, 작년 매출액 2299조 '역대 최대'

2021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2299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1 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회사 595개사(금융업 등 제외)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2299조 118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183조 9668억 원, 순이익은 156조 569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거래소가 통합 출범해 관련 통계를 낸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이다.

코스피 상장사 실적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95곳 (금융업 등 제외)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다크 스토어 (Dark Store)



불 꺼진 슈퍼마켓이란 뜻에서 유래된 용어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이른 시일 내에 배송하기 위해 운영하는 도심 내 소규모 물류센터이다.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실제 상품을 팔거나 일반 소비자가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은 아니며 온라인 배송용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포장하여 배송하는 시설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다크 스토어가 크게 확산됐다. 유통 업체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자 오프라인 매장들을 폐점하거나 면적을 줄이는 대신 온라인 주문 물품의 신속 배송을 위한 도심형 물류창고로 전환했다. 국내 대형 유통 업체들의 다크 스토어로는 SSG닷컴의 PP센터, 롯데마트의 세미 다크 스토어, 홈플러스의 풀필먼트 센터 등이 있다.

다이렉트 인덱싱 (Direct Indexing)



축적된 데이터 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투자자 개인의 투자목적, 투자성향, 가치관, 생애주기 등을 반영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다이렉트 인덱싱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투자자들의 특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투자 솔루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계 컨설팅사 올리버와이먼에 의하면 다이렉트 인덱싱 시장 규모는 2020년 말 3500억 달러에서 2025년 1조 5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월가에서는 다이렉트 인덱싱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Happy workplace



People First I

'제1회 삼성KPMG 챔피언십' 특집I
본격 포문을 연 챔피언십!
그 현장 속으로

20

People First II

'제1회 삼성KPMG 챔피언십' 특집II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주인공은
누가 될까?

22

삼성인터뷰

'FY2021 포상 시상식' 개최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24

삼성별그림

소중한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협상의 기술

28

Samjong News

삼성KPMG·매일경제
'ESG 경영포럼' 개최 外

心 Care

가깝고도 먼 존재, 가족!
건강한 가족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30

32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특집 I

본격 포문을 연 챔피언십! 그 현장 속으로



○ 유튜브로 생중계된 챔피언십 조 추첨 ‘긴장+설렘 100배’

4월 26일에 열린 첫 예선 경기를 앞두고,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의 포문을 여는 조 추첨식이 개최됐다.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은 일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찾기 위해 개최되는 법인 내 첫 골프대회이다. 아울러, 골프를 즐기지 않는 구성원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4월 초까지, 본부별 대표 선수 선정을 위한 본부 내 예선 경기를 통해 총 32개 본부의 128명의 출전 선수들이 확정됐다. 이에 4개 본부씩, 8개 조로 나뉘어 예선전을 치르고 이후 각 조 1, 2위 본부들이 16강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본부 대항전을 앞두고 4월 19일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조 추첨식이 이동욱 S.Manager(ICE1), 김혜권 S.Manager(Tax1), 이경은 S.Manager(DA3)의 진행을 통해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됐다. 조 추첨식에 참석한 김교태 회장은 “인재를 존중하는 ‘People First’ 문화를 지향하며,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준비한 대회인 만큼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면

서 동료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추첨은 김교태 회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본부와 직급 등의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각 포트별 A조부터 H조까지 추첨했다. 특히 조 추첨식이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되어 구성원들은 본인이 속한 본부가 어떤 본부와 맞대결을 펼칠지 긴장감과 설렘을 갖고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다.

한편, ‘삼정KPMG 챔피언십’은 골프 경기 외에도 포토존 이벤트, 본부별 응원 뿔내기, 롱드라이브 챔피언 및 경기 우승팀 맞이하기, 라이브 퀴즈쇼 등 골프를 즐기지 않은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됐다.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인 생활 속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열리는 삼정인 골프대회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이 본격 포문을 열었다. 4월 19일 조 추첨식을 시작으로 불꽃 튀던 예선 3차전 경기를 모두 마무리하고 16강 티켓을 얻은 본부도 확정됐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 치열했던 예선전! '16강 티켓 얻은 본부는?'

지난 4월 26일에는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의 조별 예선 1차전이 열렸다. 예선 현장은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됐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SCG본부의 장서홍 S.Consultant의 진행으로 대회 개막식이 진행됐다. 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경기 진행 방식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김교태 회장의 개막 선언과 시타가 진행됐다. 시타에는 김교태 회장을 비롯하여 조 추첨식에서 A조 1번으로 선정된 ICE2본부의 김혜영 매니저가 참석해 힘찬 시타를 선보이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예선전은 포볼 매치플레이어로 진행되어 2명이 한 팀을 이뤄 각자의 공으로 플레이한 뒤 매 홀 각 팀에서 좋은 스코어를 획득한 골퍼의 기록으로 승패가 결정된다. 이로써 총 18홀의 경기 중에서 많은 홀을 기록하는 팀이 우승하게 된다. 또한, 예선전에서 우승한 본부는 승점 1점을, 무승부로 경기를 치른 본부들은 0.5점씩 나눠 가진다. 예선 1차전답게 각 본부 선수들 간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타구에는 긴장된 몸짓도 보였지만, 이내 몸이 풀리며 선수들은 그간 갖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다. 무엇보다 예선 경기를 각 본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해설 중계를 맡아 실감 나고,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유튜브로 경기를 지켜보는 삼정인들은 소속된 본부가 우승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응원 메시지도 남기는 등 경기를 즐겼다.

불꽃 튀던 예선 1차전에 이어 5월 3일 2차전, 5월 10일 3차전 경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열한 접전 끝에 16강 티켓을 얻은 본부도 확정됐다. ▲A조- DA6, ICE2 ▲B조- MCS2, DA2 ▲C조- IM3, B&F3 ▲D조- Central Services, IM2 ▲E조- ICE1, DA7 ▲F조- IM4, DA1 ▲G조- DA3, B&F1 ▲H조- Tax5&6, DA4가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특히, G조는 죽음의 조로 불렸을 만큼 DA3본부를 제외한 B&F1, Digital, Tax1본부가 1승 2패로 동일한 승점을 가져갔다. 하지만, 예선전에서 가장 짧은 홀로 빠르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던 B&F1본부가 행운의 16강 티켓을 얻었다.

B조 역시 예선 2차전까지 16강 진출팀을 예상할 수 없어 3차전 마지막 18홀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MCS2와 DA2가 16강에 진출하게 됐다.

한편, 본격적으로 5월 16일부터는 16강 경기가 시작된다.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만큼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자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특집 II

장타자들이 펼치는 속 시원한 한판 승부!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주인공은 누가 될까?

진출 기록: 299m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모두 파이팅입니다!”

최진영 Director (Digital)

진출 기록: 296m



“상위권에 랭크되어 ‘드라이브는 쇼, 퍼터는 돈’이 아닌 ‘드라이브도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심준보 S.Manager (Deal Advisory6)

진출 기록: 292m



“드라이버 헤드를 깬다는 마음으로 세계~ 쳐보겠습니다.”

김용민 Director (I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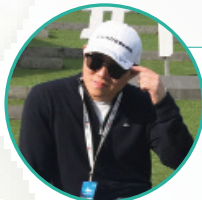
진출 기록: 292m



“롱드라이브 우승을 위해 열심히 벌크업(bulkup) 중에 있습니다. 0.1톤의 중량을 담은 스윙으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 Director (Tax1)

진출 기록: 291m



“초대 챔피언은 Tax6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민규 Manager (Tax6)

진출 기록: 288m



“골프에 대한 저의 진심을 비거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길현 Manager (Tax4)

진출 기록: 287m



“IM4의 적토마로 시원하게 날려보겠습니다~ IM4 가즈아~~~”

박재훈 Director (IM4)

진출 기록: 286m



“가까스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유 Manager (Deal Advisory3)

People First II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대회 속의 대회, ‘롱드라이브 챔피언십’의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다.
183명의 참가자가 3일간의 치열한 예선을 걸쳐 남녀 각 8명, 총 16명이 결선에 진출했다.
오는 5월 24일 결선을 앞둔 상황에서, ‘롱드라이브 챔피언십’의 우승자는 누구일지 임직원이 맞혀보는 사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삼정인들을 만나, 경기를 앞둔 남다른 한 줄 각오를 들어본다.



여자

진출 기록: 216m



“골절됐던 저의 늑골은 5/24 완벽하게 작동됩니다. 본선에선 100% 기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윤혜진 S.Senior (B&F2)

진출 기록: 211m



“저에게 응모해주신분들께 아이패드를 드릴 수 있도록 공 열심히 날려보겠습니다~!”

차지혜 Manager (Deal Advisory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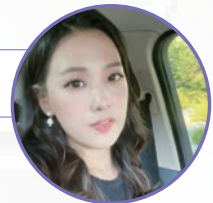
진출 기록: 200m



“3위를 목표로 힘을 더욱더 빼고 쳐보겠습니다.”

강민정 Manager (Deal Advisory4)

진출 기록: 195m



“예선이라도 통과해서 너무 기뻐요! 본선에서 부담없이 신나게 날려보겠습니다~!”

이경은 S.Manager (Deal Advisory3)

진출 기록: 190m



“비거리의 힘은 코어에서!! 코어의 힘을 모아공을 기절시키도록 날려보겠습니다~!! 하하하”

정유진 Director (Q&RM-RM)

진출 기록: 189m



“운이 좋게 본선에 올라가게 된 것 같은데 본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송재현 Associate (Tax2)

진출 기록: 189m



“한타만 잘 맞으면 돼... TSI 드라이버는 내꺼!”

양유정 Director (Q&RM-RM)

진출 기록: 187m



“경력 1년 미만 골린이라 본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 사랑해요 ITS!”

노진서 직원 (ITS)

'FY2021 포상 시상식' 개최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지난 FY2022 사업전략 발표회에서는 법인과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룬 삼정인들의 노고와 공을 치하하고자, FY2021 포상 시상식을 개최해 포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그 영광의 얼굴들은 누구인지 만나보자.

FY2021 삼정KPMG 포상 수상자

포상명	구분	수상자	수상 선정 이유	포상금/휴가
최우수 본부상	본부	Deal Advisory5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탁월한 업무 수행과 새로운 업무 개발, 협업으로 최고의 건강한 성장을 이룬 본부 	1,000 만원
우수 본부상	본부 (공동수상)	Deal Advisory3 본부		500 만원
		IM1 본부		500 만원
Professional of the Year	개인 (공동수상)	최연택 Director (IC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여 ICE 산업 발전에 기여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Together Value 실현) 	100 만원/3 일
		정재훈 Director (Deal Advisory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팀워크로 국제증재에서의 높은 기대를 맞추는 Excellence Value 실천 전문가로서의 실력과 업무에 대한 소명적인 태도로 협업하여 문제 해결 	100 만원/3 일
		이진욱 Director (Tax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의 수익 창출에 유용한 세법 개정내용을 선제적으로 검토 및 제안 고객사 발굴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주도적으로 진행 	100 만원/3 일
	팀 (공동수상)	SK 텔레콤 감사팀 (ICE1, IT Au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량 고객사와의 강한 Relationship 유지 및 신뢰관계 증진 사전적으로 이슈에 대응하며, 우수한 감사 Quality 입증 	300 만원/2 일
		티맥스소프트 매각자문팀 (Deal Advisory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대응과 긴밀한 법인 내 Co-work 으로서 업무 수행 Market Reputation 강화에 크게 기여함 	300 만원/2 일
	Business Development of the Year	팀 (공동수상)	ESG 데이터 플랫폼팀 (SCG)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중소/중견기업 ESG 실행 지원 ESG 기반 Biz 시장 개척하여 ESG 시장 혁신 주도 및 신규 수익원 확보
DSP3 팀 (MC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품질 개선과 핵심 개발 역량 내재화로 성공적인 프로젝트 마무리 강한 팀워크 기반으로 구축 프로젝트까지 수주하여 진행 	300 만원/2 일
GKP of the Year	개인	황현동 Director (체코 Korea De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수익 축소 방지 및 새로운 시도를 통한 성장의 한계 극복 선제적인 현지 고객사의 니즈 파악 및 성공적인 업무 개발로 KPMG 체코와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얻음 	100 만원/3 일
Recruiter of the Year(신입)	개인	중앙대 TFT 강지현 Manager (CM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교류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6년간의 리크루팅 활동 경험으로 체득한 인사이드를 통해 솔선수범한 TFT 활동 	100 만원/3 일
Probono of the Year	팀	Cyber Day 팀 (Digital Te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지역 사회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 미래 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사이버 보안 위협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의미 있는 활동 수행 	300 만원/2 일
Innovator of the Year	팀 (공동수상)	Office 혁신 팀 (총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임차 관련 유리한 제반 계약조건 상시 확인 및 합리적인 협상 안건을 선제적 도출, 성공적인 GFC 사무실 연장 계약 FY21 동계감사시즌 3개 지역 거점 오피스의 효율적 기획 및 운영 	300 만원/2 일
		Central Services 행정업무 자동화 TFT (회계팀, PPC, 총무팀, 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HR 패키지시스템을 기반으로 법인에 최적화된 인사프로세스 디지털화, 특히 Big4 유일 Paperless 입사 프로세스 도입, 연말정산 자동화 구현으로 자료 제출 최소화 각 팀의 협업을 통해 RPA (Robotics Process Automation) 'First Penguin' 육성하여 업무 자동화, 직원 Empowerment를 통한 주도적 프로젝트로 업무 자동화 및 업무 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300 만원/2 일



김이동 본부장
(Deal Advisory5)

최우수 본부상

훌륭한 본부가 많음에도 우리 본부가 큰 상을 수상하여 참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국내 M&A 시장이 성장하면서, M&A 자문과 실사를 주력으로 하는 우리 본부가 수혜를 입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돌아보면 KPMG 내 선후배분들의 도움으로 발굴되고 성사되었습니다. KPMG의 Value인 'Together' 가치를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본부를 아끼고 맡겨 주신 고객들의 믿음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어려운 비즈니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일조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기쁨에 앞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Vision 2025'의 중요한 출발선인 2021년에 우리 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 같아 본부원들과 함께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IM1 No.1을 향해 노력해준 IM1 본부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5년간 본부 매출이 3배 가까이 꾸준히 성장한 만큼 누적된 피로감이 없지는 않으나, 앞으로도 자신감과 도전 정신으로 'Vision 2025! - No.1'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수 본부상



변영훈 본부장 (IM1)



이진욱 Director (Tax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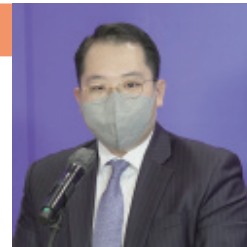
Professional of the Year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애쓰시는 선후배분들을 대신해 받게 되었다는 감사한 마음, 말하기 힘든 책임감 등이 밀려와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삼정KPMG Tax는 개개인의 실력 향상과 체질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Value 창출에 더욱 기여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Tax로, 업계를 선도해가겠습니다.



Business Development of the Year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속적인 도전을 위한 업무 환경을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SG 데이터 플랫폼은 ESG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업들이 ESG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공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에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시스템이 우리 본부 외에도 법인 전체가 활용하는 공유 자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ESG 정보공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재명 Manager (SCG)



소중한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며, '삼정별그램'에서는 삼정인들이 그간 소중한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정인들이 보내온 가슴 따뜻한 편지글을 읽어보자.

사랑하는 세쌍둥이, 도로시(도하, 로하, 시하)

김민성 대리 (파란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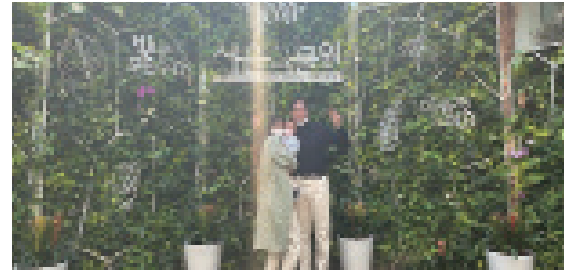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세상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었는지, 혹은 3명이 같이 있느라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는 25주 6일 만에 태어났어. 일찍 나와서 너무 작았고, 또 몸이 불편했는지 수술도 하고 말이야. 엄마와 아빠는 잘 견디라고 기도와 응원밖에 할 수 없던 날들이 많았어.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을까? 대신 아픔을 겪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슬펐단다. 그렇지만 잘 견뎌 주었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건강한 도로시를 볼 때마다 대견하고, 고맙단다. 22년 4월 8일, 태어난 지 1000일 되는 날 케이크에 초를 켜고 서로 불을 끄겠다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아빠는 함박웃음을 지었단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길 기도할게. 사랑한다 도하, 로하, 시하야♥



행복한 우리 가족, 사랑하는 딸과 두 엄마!

마영준 S.Consultant (MCS2)



태어난 지 벌써 20개월이 지난 우리 딸,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커 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앞으로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사랑해! 그리고 두 엄마, 우리 인생은 우리 딸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뉘는 거 같아. 많은 걸 포기하고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인 두 엄마, 앞으로 아빠가 더 잘할게. 대신 엄마도 아빠한테 더 잘해라. 사랑해!

든든한 지원군 우리 엄마!

박소은 Manager (IA)

엄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요. 법인에 입사하고 첫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맞벌이로 바쁜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늘 나에게 힘을 준 사랑하는 엄마

김지원 Senior (IT Audit)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계신 집에서 떠나 새 가정을 꾸린 지 벌써 열흘 정도 지났네요. 함께 살고 있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제 마음속에 엄마의 자리가 참 큰 것 같아요. 매일 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던 때가 떠올라 눈이 시큰해지곤 합니다. 자주 찾아뵙게요. 그리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오래 갓아 나가겠습니다. 엄마께서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려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감태준 Associate (B&F3)



이 사진은 들판에 빼곡히 핀 수선화를 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충남 서산유기방가옥이란 곳을 찾은 날입니다. 화창한 봄 햇살 아래 노란 수선화가 만개하여 즐겁게 구경하다, 평소 사진에 무관심하시던 아버지가 산책로의 사진 기사님을 보시고는 가족사진을 찍자고 청하셨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찍고 나니 추억이 되었네요.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자주 여행 가고 사진도 많이 찍어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살뜰히 살피주며 힘이 되어준 아내!

정상모 Manager (MSC2)



항상 저를 위해 기도와 함께 건강을 챙겨주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여보, 내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일 때, 불편함 없도록 삼시세끼 식사도 직접 챙겨주며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반면, 당신이 먼저 확진되었을 때 일을 핑계로 크게 신경 써주지 못한 거 같아 미안해! 너무나 고맙고, 사랑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누나!

정기정 S.Consultant (MCS2)

누나, 6월 5일에 있을 결혼 축하해! 30년을 한집에서 같이 살다가 드디어 누나가 결혼을 준비하고 집도 구해서 따로 살게 됐네. 돌이켜보면 다른 남매들처럼 티격태격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면서 무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 항상 부모님과 나를 잘 챙겨줘서 고맙고 앞으로 내가 누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 듬직하고 착한 용희 형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 다른 곳에서 지내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 항상 행복하게 잘 살자!



**협상은 마음에 안 드는 파트너와 춤추는 방법이다.
BATNA 없이는 나서지 마라.**

협상의 기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라!” 협상 명구로 자주 인용되는 이 구절은 알 파치노 주연의 명작 <대부(Godfather)>에 나오는 말인데, 미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명대사 2위로 꼽힌 적도 있다. 마피아 두목인 돈 콜레오네는 특유의 말투로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라고 말한다. 이 말이 떨어지면 상대방은 곧 죽은 목숨이다.

원래 ‘협상(negotiation)’이란 마음에 안 드는 파트너와 춤추는 방법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협상판이다. 협상에서 세계 최강은 역시 미국이다. 그들은 우선 관계와 문제를 철저히 분리한다. 하버드 대학의 협상이론 중 원칙협상(Principled Negotiation) 모델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한편 대다수 한국인들의 협상 패턴을 보면 대응 전략이 단조로운 데다 논리와 증거가 약해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딱한 느낌이 든다. 과거 올림픽 중계권, IMF 채권단, KF-X 전투기 도입 시 기술 이전 건 등 굵직한 협상 건들을 되돌아보면 이건 호구가 따로 없다.

민간인들도 순진한 건 마찬가지다. 특히 붉은 머리띠를 두른 국내 노조 집행부들이 임투 협상테이블에서 내거는 전략은 오직 하나다. 한마디로 말해 “갈 데까지 가자”는 거다. 짚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 패를

다 들켜버린 마당에 이런 전략에 겁먹을 상대가 남아 있을 리 없다. 협상의 ABC에 “내 심장을 울리는 상대의 달콤한 말엔 내 심장을 겨누는 화살이 있고, 상대의 극진한 진수성찬 그릇 밑엔 내 뼈를 자를 칼이 숨겨져 있다”란 말이 있다. 진정한 협상가는 상대의 과도한 환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협상학 이론상 모든 협상자는 협상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성과를 얻어내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협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5대 요소로는 협상 목표, 협상력, 관계, BATNA 및 정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BATNA(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란 협상의 가장 기본 개념인데, 이것은 협상 결렬 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을 의미한다. 과거 청계천 복원공사 계획 당시 완강한 상인들에게 내민 서울시의 대응은 유명한 사례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원공사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걸려 있는 청계고가를 전면 보수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3년입니다.” 그 후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결국 협상이란 최고의 대안, 즉 나만의 배트나를 찾는 일이다. 그것 없이 협상에 임하는 건 아마추어가 프로와 맞붙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ZOPA(Zone Of Possible Agreement)’인데 이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의 범위를 명확히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능한 구간인 셈인데, 각 계약 당사자 간 BATNA의 공통 교집합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협상에 임하기 전 이번 협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또한 모든 협상의 이면엔 ‘히든 스팟’이 있다. 상대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는 일이다.

하버드대 협상연구소, 다니엘 샤피로 박사는 저서 <불가능한 협상은 없다>에서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제시한다.

- 첫째,** 감정이 뒤틀린 상태는 금물이다.
 - 둘째,** 금기를 인정하라. 상대방이 가진 고유의 금기 영역을 인정하여 안전지대를 확보하라는 의미다.
 - 셋째,** 상대방이 신성 시 하는 걸 존중하라.
- 결국 협상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말아라. 하지만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존 F. 케네디의 말이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을 움직이는 50인’에 등재된 교보 광화문출판에 두줄칼럼 중 대표작 <겸손>이 최종 선정되어 주요 도시에 전시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칼럼(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가깝고도 먼 존재, 가족! 건강한 가족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호에서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가족 간의 대립할 수 있는 갈등은 무엇이 있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가족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려 한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이라고 했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존재가 있다. 그것은 가족이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모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해 그 분의 일상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부모로 인해 그 분의 현 가족 구성원들의 고통이 컸다. 상담자로서 그 분에게 “고생하며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보답하기 위한 마음은 너무 잘 알겠으나,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과 조금 거리를 뒤 보는 것이 어떤지요”라고 권했다. 그 분은 몹시 놀라며 “어떻게 부모님과 멀어지라는 말입니까? 천륜을 끊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 사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독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자책감을 느낀다.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부모는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와 같은 말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에는 가족과 자신의 완전한 분리가 어려운 정서가 숨겨져 있다. 자식의 배부름과 부모의 배부름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부모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동일한 것이 아님에도 가족 간에

는 서로의 욕구와 만족감, 실망감이 뒤섞이기 마련이다.

○ **함께하고 싶으면서도 멀어지고 싶기도: 분화**

가족치료 이론을 정립한 머레이 보웬(Murray Bowen)은 가족 구성원들은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서로 의지하려는 마음(연합성)과 동시에 홀로 독립해서 지내려는(개별성)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고 봤다. 당연히 이 두 마음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정 내에서 한 개인으로 성장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 독립하는 것을 '분화'라고 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분화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비록 예민한 기질을 가졌더라도 감정적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

반면에 가족으로부터 완전한 정서적 분리, 독립이 어려워 지극히 가족 의존적으로 살거나 혹은 가족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미분화'라고 한다. 가족은 애초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적 집단이 아니고 다분히 감정적 집합체이다. 그런데 이 감정덩어리 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분화되지 못했다면 일상에서도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고 감정조절과 관련된 문제를 빈번하게 겪을 수 있다.

○ **건강한 독립과 분화가 어려웠다면**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독립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강압적인 부모로부터 과도하게 통제받고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다면 자녀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신뢰하기가 어렵다. 혹은 부부의 잦은 다툼과 갈등을 목격한 자녀에게 엄마가 계속해서 아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는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독립과 분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부모의 미숙함에 많이 노출된 자녀일수록 정서적 독립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

첫째,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격려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도 나라는 것을 잊지 말자.

둘째,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갈등을 겪을 때 여러 선택지 중에 고민이 된다면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자.

셋째, 가족이라는 그늘에서 지냈으나 그늘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양지와 그늘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도 독립이 한결 가벼워진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 있으나, 가족이 없기도 한 각자의 외로운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 '함께' 하기에 참 소중한 가족이지만 결코 나와 가족은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에서 상담, 위기 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삼성KPMG·매일경제 ‘ESG 경영포럼’ 개최 ‘ESG 2.0 시대, 기업의 비즈니스 전환과 이행 전략’ 살펴봐



출처: 매일경제

지난 4월 27일, 삼성KPMG는 매일경제신문과 공동 주최로 ‘ESG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으며, 총 7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주제는 올해 본격 도래될 ESG 2.0 시대에 포커스를 맞춰 ‘ESG 2.0 시대, 기업의 비즈니스 전환과 이행전략’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ESG 경영전략 체계를 구축했던 ESG 1.0 단계를 넘어, 올해는 ESG 2.0 시대가 본격 도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SG 2.0 시대에는 기업들의 ESG 비즈니스 전환에 따른 실제 성과 창출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포럼에서는 삼성KPMG의 ESG 전문가들과 SK, 롯데, 네이버, 두산,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기업의 ESG 담당자들이 ESG 운영 사례, 비즈니스와의 연계 방안, 실제 성과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재닌 기요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 총괄고문 겸 VRF(Value Reporting Foundation) 대표가 영상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ISSB의 ESG 공시기준 준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기요트 고문은 “기업들은 ESG 데이터의 관리 프로세스와 조직,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며 “ESG 데이터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이사회 역할 강화 등 지배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통해 유럽에서 통용될 수 있는 ESG 보고 기준을 마련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초에 ESG 공급망 실사 지침을 공개했다. 이에 포럼에서는 KPMG 독일 Roxana Meschke 파트너와 Hanno Neuhaus 파트너가 영상을 통해 EU의 CSRD과 EU의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삼정KPMG ESG 정보공시/인증 리더인 김진귀 전무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동향 및 ISSB 도입에 따른 국내 대응 방안, EU 공시법안과 국내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전했다. 김진귀 전무는 “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 재무 정보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무 보고 수준의 신뢰성과 공시 일정 단축을 요구한다”며 “기업 내 전문성 있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역할이 중요하며, ISSB의 ESG 공시기준 대응을 위한 전사적인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삼정KPMG는 ESG 전략/실행, ESG 정보공시/인증, ESG 재무 자문 등 3개의 CoE(Center of Excellence) 파트로 구성된 ESG Business Group을 운영하며 고객 맞춤형 ESG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이번 포럼은 삼정KPMG 아카데미(www.kpmgacademy.co.kr)의 세미나 다시보기를 통해서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Contact: 이동석 부대표 dongseoklee@kr.kpmg.com



삼정KPMG,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 공식 지정

삼정KPMG가 지난 4월 18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에 공식 선정됐다. 이는 TTA(정보통신산업기술협회), 금융보안원 등에 이어 4번째로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엄격한 심사와 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삼정KPMG는 신규 지정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네이버, 카카오, 토스, NHN페이코,뱅크샐러드 및 각종 금융사)에 대한 보안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인증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사업과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컨설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의 날 맞이해 시각장애 아동 교구 제작 나서 점자촉각 단어카드 제작 봉사 진행



삼정KPMG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 아동들이 점자와 친해질 수 있는 점자촉각카드 제작 봉사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전체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해 자택으로 점자촉각 단어카드 제작 키트를 배부했다. 이후 봉사에 참가한 삼정KPMG 임직원 및 가족들은 점자촉각 단어카드를 각자 자택에서 제작하고, 완성품을 보내왔다. 완성된 촉각카드는 시각장애학교 및 복지기관에 기부됐다.

한편 삼정KPMG는 2005년부터 사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교육·환경·문화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2011년 설립된 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는 매년 22개의 지원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서울시 내 저소득 가정 뇌병변 장애아동들의 수술비·재활 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삼성포럼,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 주제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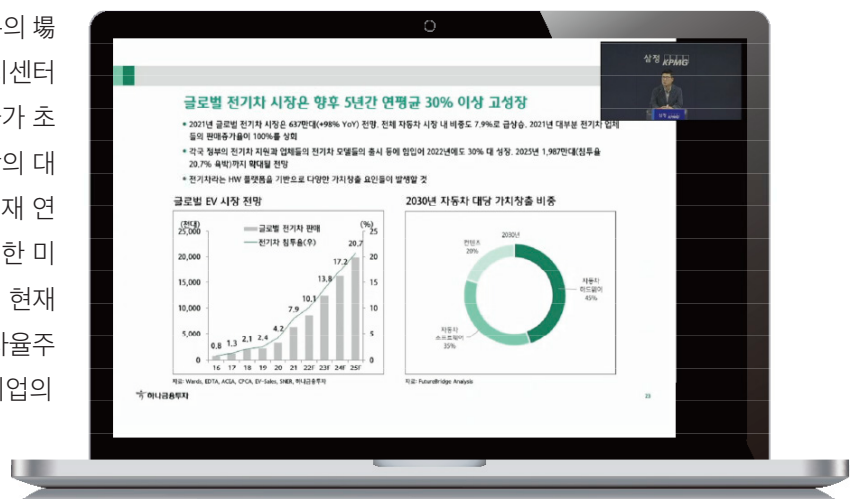


삼성KPMG는 4월 13일 ‘삼성포럼 -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를 팀즈 라이브(Teams Live)와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주)비트스퀘어 정구태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가상자산’, ‘NFT’, ‘Defi’, ‘P2P’,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STO(증권형 토큰공개)’ 등 디지털 자산의 등장 배경과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외 기업의 활용 사례 및 디지털 자산이 불러올 미래 전망을 공유했다.

총 330명의 임직원과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 정구태 대표는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와 트위터 블록체인 상용화, 국내 페이팔 간편결제 접목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국내외 가상자산 산업의 현주소를 짚었다.

Deal Advisory 고객 소통의場, ‘자율주행 전기차’ 주제로 개최

삼성KPMG는 4월 15일 Deal Advisory 고객 소통의場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송선재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초래하는 자동차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강의 대상은 전체 파트너와 DA 멤버다. 강연에서 송선재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투자 기회 모색을 위한 미래 자동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전기차 시장의 현재 경쟁 구도 및 동향과 전망을 제시했다. 나아가 자율주행차에서 IT/SW 부가가치의 상승에 따른 각 기업의 기술개발 전략 및 타임라인을 공유했다.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성KPMG 아카데미



삼성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성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성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